



1.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훈련의 중요성

예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먼저 열두 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훈련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사랑의)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일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롬 5:5).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그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을 다스린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은 의미 없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거운 짐이다.”(생애, 47)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일에 종종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마 26:41)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졸며 자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받기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에 빠지게 된다.”(소망, 83)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나요?” 만약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함께 맺어 봅시다.

“우리는 성경을 탐구하여야만 한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일도 없이 그냥 급하게 한 장 한 장 훑어나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심령을 부요하게 하여 주고 기만자의 간계와 유혹에 대항하여 영혼을 지켜 줄 그 진리의 보물을 찾아 캐내어야 한다.”(리뷰 앤 헤럴드, 1878. 11. 28.)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관해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생각해 주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약해지게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사물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강해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마땅히 연구해야 할 만큼 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더욱더 넓은 마음과 고상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정로, 89)

2. LT(엘티) 교재를 만들게 된 이유

LT(엘티)는 Loving Time(러빙 타임)의 약자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라는 의미입니다.

저의 가족은 서로 다른 본문을 가지고 그동안 묵상을 했었습니다. 저는 레위기, 아들은 창세기, 딸은 생애의 빛 등... 또한 딸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줘도 스스로 묵상하는 것을 힘들어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본문으로 묵상하고 묵상을 힘들어하다 보니 가족 묵상 시간이 기쁘기보다는 힘들어 하는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니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는 유대감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가족 말씀 묵상은 어느덧 사라져 버렸습니다.

2019년 선교단 팀원들과 어린이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면서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온 가족이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장년과 달리 어린이들은 성경만 가지고 묵상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제가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족이 아침에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의 자녀들은 아침에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핸드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 보기 전에 말씀 묵상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해보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3인 아들과 초6학년 딸에게 조심히 권했습니다. “핸드폰 보기 전에 말씀 묵상을 먼저 하지 않을래?” 감사하게도 모두 즉각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빠가 너희가 스스로 묵상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 테니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해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묵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른 묵상 교재들을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 가족이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였어요. 딸이 묵상한 내용을 옮겨봅니다.

***줄거리:**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하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

***느낀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말씀 묵상을 하도록 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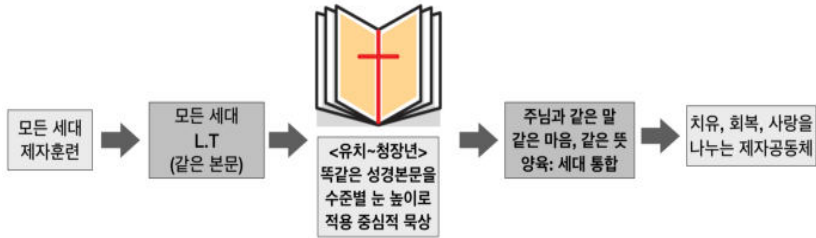
***적용:** 말씀 묵상하기 싫어해서 계속 안하고 대충 넘어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해야겠다. 예수님 이제부터 성경공부를 대충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실천: 매일 아침 핸드폰 보기 전에 말씀 묵상을 먼저 하자.

아들의 적용도 비슷합니다. “이제는 말씀 묵상을 규칙적으로 해야겠다”

저는 이날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적용으로 아이들과 함께 묵상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말씀 안에서 모든 세대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선교 단원들 역시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JDTS 선교단은 모든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 같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고전 1:10)으로 양육되어 사랑을

나누는 제자 공동체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목상을 보다 쉽게 할수 있도록 ‘러빙타임’이라는 월간 목상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One message! All generations!

3. 목상하는 방법

1) 관찰(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

관찰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하며 그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의미심장한 단어들이나 반복되는 단어들, 장소, 시간, 등장인물, 내용의 흐름 등을 찾아보면서 질문해 봅니다.

예를 들면 ‘이 단어들이 자주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 시대의 풍습은 어떠했을까?’, ‘이러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등을 질문해 가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관찰하기 위해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질문해 보십시오.

목상범위: 막 1:35-39

“35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6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1. 관찰

*줄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발견한 사실

- ① 예수님께서 매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무엇을 하셨습니까? (35절)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 ②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38절)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2) 통찰(해석: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찰(해석)은 발견한 사실에 대해 ‘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방법으로는 성경절들을 비교해보고, 내용을 추론하고 분석하여 발견한 사실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2. 통찰(해석)

- 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않고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셨다.

- ②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전도다. 멸망에 빠진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셨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3) 적용(본문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말씀 묵상은 항상 개인적인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원리들을 찾아냈다면 이미 절반을 이뤄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그 원리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적용은 매일 개인의 삶 속에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두 가지 핵심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이것을 보다 세부적으로 5가지로 나누면 '고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피해야 할 행동', '순종해야 할 명령', '따라야 할 모범'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약 1:22)

“비록 새롭게 된 심령이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마지막 사건, 65)

4. 적용

① 피곤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 그래서 영적 생애가 메말라 간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며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아침 6시 30분에 꼭 일어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실천하기: 6시 30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내일부터 갖자.

*기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소서.

② 교회에서 전도하러 가자고 할 때 솔직히 귀찮은 마음이 있었다. 또한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다. 이런 마음을 회개하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이 땅까지 오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000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실천하기: 오늘 000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 약속을 잡자. 전도의 기회로 만들어 보자.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귀찮아하고 피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전도하는 일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 살아있는 적용을 쉽게 하는 방법 5단계

- 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관계(가족, 직장, 친구, 교회 등), 말, 행동, 생각 등을 살펴봅니다.
- ②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회개합니다.
- ③ 앞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할 것을 결심합니다.
- ④ 실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은 정리합니다.
- ⑤ 기도: 나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 형식적인 적용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자”, “말씀을 읽자”, “기도하는 삶을 살자” 등과 같은 일반적인 적용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힘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빛 아래 자기 성찰을 통한 말씀 묵상은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지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음으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개인의 처지에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의료봉사, 136)

★ 말씀 나눔을 할 때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을 중심으로 나누세요.

4. LT(엘티) 교재 사용법

이 교재는 청소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권의 책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어린이 러빙타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묵상 범위는 맥케인 성경 통독을 중심으로 약 7-8년 동안 구약 1번, 신약 2번, 시편 2번을 묵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묵상 본문을 3번 읽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면 구약 3번, 신약 6번, 시편 6번을 통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먼저 성경 본문이 있고 옆 페이지는 스스로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과 설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 묵상마다 적용 간증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꽃은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큐티인 책을 중심으로 인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묵상 운동이 확산되면 올해 안에 우리들의 이야기로, 우리들의 간증으로 적용 간증이 채워질 것입니다.

또한 매주 안식일에는 설교 노트를 쓸 수 있도록 했고 한 주 동안 묵상한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그룹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부분은 JDTS 제자훈련받는 분들의 간증문이 실려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제자훈련의 중요성과 삶의 변화를 공감할 뿐 아니라 제자훈련하면서 여러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혜와 인내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5. 히브리서 개관, 빌레몬서 개관: SDA 주석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영문이면 한국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빌레몬서)

‘러빙타임’ 말씀묵상 월간지는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에서 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치유되며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제작했습니다.

2021년 4월 엘티 본문		
첫째 주 4월 1-3일	히브리서 1장 1절 - 3장 6절	10-21
소그룹 나눔	히브리서 1장 1절 - 14절	22-27
둘째 주 4월 4-10일	히브리서 3장 7절 - 7장 19절	28-55
소그룹 나눔	히브리서 5장 11절 - 6장 8절	56-59
셋째 주 4월 11-17일	히브리서 7장 20절 - 10장 25절	60-87
소그룹 나눔	히브리서 9장 11절 - 22절	88-91
넷째 주 4월 18-24일	히브리서 10장 26절 - 13장 17절	91-119
소그룹 나눔	히브리서 11장 27절 - 40절	120-123
다섯째 주 4월 25-30일	히브리서 13장 18절 - 13장 25절 빌레몬서 1장, 시편 7 - 9편	124-147
부 록	JDTS 제자훈련 간증	148-151

2021년 전반부 본문

1, 2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시편 1-6장 / 3, 4월: 열왕기하(1-14장), 히브리서, 빌레몬서, 시편 7-9장 / 5, 6월: 열왕기하(14-25장), 예레미야애가, 데살로니가전후서, 시편 10-15장

*이번 달 간증은 큐티엠에서 나오는 큐티인 2019년 4월호를 부분 인용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히 8:1-13)

📖 성경 본문을 3번 정도 읽고 체크해 보세요. □ □ □

모형인 장막

1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3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4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5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6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

7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라 12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관찰

통찰

★ 단어사전: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첫 언약: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 줄거리: 구약의 제사장들이 섬기던 지상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원형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어 첫 언약을 대신하여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 질문 도우미>

모형인 장막 (1-6절)

- 1) 관찰: 하늘의 참 장막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어디에 계십니까? (1절)
- 2) 통찰: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6절)
- 3) 적용: 중보는 계약의 실행을 보증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언약을 성취시키는 일의 보증인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는 새 언약의 이행은 신뢰할 만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깬 만한 나의 숨겨진 죄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중보자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면 어떨까요?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 (7-13절)

- 1) 관찰: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대신에 사람의 어디에 기록을 합니까? (10절)
- 2) 통찰: 새 언약의 세 가지 우월성은 무엇인가요? (10-12절)
- 3) 적용: 새 언약의 첫 번째 우월성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면적으로 기록된다는 점입니다(10절). 그것은 새 언약이 우리 영혼 깊숙이 내면적으로 새겨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월성은 언약의 중재자가 필요치 않다는 점입니다(11절). 세 번째 우월성은 완전한 사회에 있습니다(12절). 새 언약하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는 완전하고 영원한 죄 용서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형벌의 두려움에 의한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동기에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를 이기게 할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

최근 편입하며 시작된 대학 생활은 너무나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3시간의 거리를 통학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시험 공부와 과제, 인터넷 준비와 아르바이트까지... 모든 일정과 해야 할 일이 큰 산같이 느껴져 우울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중에 살인적인 시험 범위에 숨이 막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결국, 카페를 뛰쳐나와 순간이었지만 '차도에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 묵상은 소홀히 하며 내 방법과 내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우울해져서 결국 '시험을 보러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른쪽 어금니가 너무 아파서 치과를 찾았는데, 백만 원이 훌쩍 넘는 치료 견적을 받아들고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치료 중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발치하여 임플란트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데... 이는 아프고, 기말고사 기간인 데다가 그날까지 과제와 근로장학생 신청을 해야 했기에 저는 더욱 심란했습니다. 친구에게 의지해보려고 연락을 했지만, 성심으로 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의 위로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서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엄마의 담담하고 부드러운 반응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남자친구와 헤어진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새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8절). 하지만 모든 이적을 경험하고도 저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열조처럼(9절)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제 노력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일정과 사건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답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바쁘고 할 일이 많다면 말씀 묵상을 뒤로 쳐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제 생각에 두지 않고 마음에 기록하지 않는 죄'였음을 깨닫습니다(10절). 그런데도 저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셔서(12절) 이렇게 간증 집필을 통해 제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상을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청년 김다솜)

☞ 실천하기: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며 2학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우울하고 걱정이 앞설 때 잠시 하던 것을 멈추고 그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한 사람들로 구성된 지상의 교회는 “참 장막”이다... 그리스도는 “참 장막에 부리는 자”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대제사장이시다.”(사인즈 1900. 2. 14)

첫 언약의 한계(히 9:1-10)

📖 성경 본문을 3번 정도 읽고 체크해 보세요. □ □ □

지상성막에 대한 간략한 설명

1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2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3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싣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5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6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지상성막 제도의 한계성

8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관찰

통찰

★ 단어사전: *진설병: 성막의 첫 번째 칸 떡상 위에 정렬해 놓는 열두덩어리의 떡들, *속죄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덮는 덮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장소”라는 의미.

★ 줄거리: 첫 언약, 곧 지상성막 제도를 살피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둘째 장막 곧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첫 언약의 제도로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은 개혁할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 질문 도우미>

지상성막에 대한 간략한 설명 (1-7절)

- 1) 관찰: 본문에 의하면 첫 장막에서 금향로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4절)
- 2) 통찰: 원래 있는 위치와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 3) 적용: 기도를 의미하는 금향로의 위치는 첫째 칸에 있으나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은 둘째 칸에 포함되었습니다. 내가 구별하고 있는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나는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얼마나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지상성막 제도의 한계성 (8-10절)

- 1) 관찰: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드러지는 예물과 제사는 무엇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까? (8절)
- 2) 통찰: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3) 적용: 양심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믿을 때입니다. 나의 양심은 나의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까? 매일 나의 양심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멀어지는 나

저는 모태신앙인인데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말씀을 너무 모르는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을 인도하시느라 예배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지난주 설교 말씀이 무엇인지 떠오르지도 않고, 말씀 묵상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말씀 묵상을 좀 했는데 올해는 거의 하지 않고 적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셔도 저는 예법도 없이(1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분리 불안을 치유해 주시고 저를 만나주셨는데, 저는 저의 언약의 돌판(4절)이 대체 어디로 갔는지, 어떤 말들이 적혀 있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고, 아쉬울 게 없으니 내 힘으로 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을 보니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종일 주님을 잊고 삽니다. 저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고, 게임 하는 것이 좋고, 유튜브 영상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데, 만약에 성경을 한 시간씩 보라고 하면 저는 지루해서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나니 말씀과 멀어지고 생활 예배가 다 무너진 저의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전에는 유튜브의 게임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이벤트가 당첨되어 컴퓨터가 생겼습니다. 그런 행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걸 보니, 저의 신앙은 정말 기복적이고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방식으로 저를 사랑해주시고, 묵상 간증 집필을 하게 하셔서 말씀에 붙어 있으라고 격려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 개혁을 이루어주신(10절)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저의 삶이 되도록,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누리는 제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중3 한예준)

☞ 실천하기: *엄마와 함께 매일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필기를 하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이 사람의 양심에 죄를 깨닫도록 하셨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을 때에 구주의 생명을 주시는 자비하심이 먼저 그 갈망하는 심령에게 복을 주셨었다.”(소망, 268)

4월
14일 (수)
2021년

Loving Time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히 9:11-22)

📖 성경 본문을 3번 정도 읽고 체크해 보세요. □ □ □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심

11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피로 세우신 언약

15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18 이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관찰

통찰

★ 단어사전: *기업: 상속, 상속 재산, 유산, 소유, 기업.

★ 줄거리: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죽음, 곧 흘린 피를 통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말씀 묵상 질문 도우미>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심 (11-14절)

- 1) 관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14절)
- 2) 통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 적용: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혹 예수님을 해답으로 하고 싶지 않은 문제가 있나요? 오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피로 세우신 언약 (15-22절)

- 1) 관찰: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를 위한 어떤 분이 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까? (15절)
- 2) 통찰: 그리스도께서만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것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 3) 적용: 다른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 하고자 하는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까 아니면 나의 공로입니까?

사랑에 보답하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저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니(12절), 이제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늦잠과 TV,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 예배를 빠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빠진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믿어 지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며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또 예배보다 공부를 먼저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당연시하고, 이것이 죄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평안이나 복을 빌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헌금을 드려야 할 때면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되어 억울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죄 사함을 이루셨다고 하니, 그 큰 사랑에 저도 사랑으로 응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말씀 목상을 열심히 해야만,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값없는 구원을 은혜로 선물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이제는 나의 힘으로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처럼(22절), 저도 피, 땀, 눈물을 흘리는 구체적인 적용을 하기 원합니다. 친구들이 예배를 빠지고 놀자고 해도 잘 거절하고, 시험공부나 늦잠 때문에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말씀 목상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꼼꼼히 목상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믿음을 판단하면서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이미 받은 구원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고1 김은영)

☞ 실천하기: *예배일을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찍 자겠습니다. *말씀 목상을 하기 전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은 연합된다. 그분의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고 유한과 무한을 연합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끔 높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2중언, 201)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 (히 9:23-28)

📖 성경 본문을 3번 정도 읽고 체크해 보세요. □ □ □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23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심판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

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관찰

통찰

★ 단어사전: *그림자: '복사물', '모형' '상응하는 것'.

★ 줄거리: 그리스도는 더 좋은 제물로서 참 것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드리신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 묵상 질문 도우미>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23-26절)

- 1) 관찰: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제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24절)
- 2) 통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요?
- 3) 적용: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온전히 우리를 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셔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돕기를 원하실까요?

심판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 (27-28절)

- 1) 관찰: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무엇과 상관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
- 2) 통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 3) 적용: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없이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의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있습니까?

갈등

제 딸은 학원에서 웹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인관계에 서툰 딸을 보며 늘 걱정이 앞섰는데, 학원을 다니며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도 하고 공동 작품도 만들어내는 모습에 다소 안심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동아리에서 웹 사이트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던 중에 말씀에서 죄라고 한 동성에 이미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믿지 않는 동아리 선후배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며 딸을 조롱했고, 딸은 신앙적으로 갈등에 빠졌습니다. 딸은 저와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하여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잣대로 여러 비유를 들며 "당장 그런 모임은 나오고 그런 아이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에게도 이슈인 동성에 문화를 두고 갈등하며 믿음의 길을 따르려는 딸을 이해하기보다, 아이들이 내 딸을 배척한다는 사실에만 화가 나서 적개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자 딸은 "아빠는 옳은 소리도 너무 기분 나쁘게 한다"면서 울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상담 선생님이 제게 조언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은 자녀 일을 미리 걱정하고는 무조건 충고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태도가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27절)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구원'을 우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구원보다 제 분노만 앞세운 인본적인 아빠였습니다. 성경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하는 딸을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딸의 감정만 상하게 한 것입니다. 또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야 할 딸의 친구들을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사과하고 교회 공동체에 물어보고 대처하라고 했습니다. 딸은 자신이 속한 청년부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잘 인도받은 후 지혜롭게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드러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26절), 저도 오직 구원만 생각하는 아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분노나 염려로 말을 내뱉지 않고, 오직 말씀 따라 적용하며 자녀들을 잘 공감해주겠습니다. (장년 오장익)

☞ 실천하기: *자녀들이 고민을 이야기하면 "참 힘들었겠구나"하며 공감해주겠습니다. *제가 하려는 말이 구원을 위한 말인지 늘 생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대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지셨다. 그분은 연약하고 곤란을 당하는 영혼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신다."(3기별, 325)

1. 마음열기

최근에 이전보다 더 나은 물건을 샀다면 무엇이 있나요? (옷, 전자제품, 주방제품, 가구, 음식 등)

2. 본문 줄거리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대속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더 나은 피로 드린 제사이기에 땅에 속한 장막에서 짐승의 피로 드린 이전의 제사와 달리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3. 말씀 나눔

1) 관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14-15절)

2) 적용: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마 1:18; 히 4:15)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용서받은 확신이 없는 나의 죄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죽은 행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 NOTE: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흠 없는 짐승의 피와 짐승을 태운 재를 뿌리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그를 거룩한 자로 인정해주셨습니다(민 19장).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짐승의 피와 재로도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히 4:15) 우리의 대속 제물로 삼아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그분을 섬기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듯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분입니다.

3) 적용: 하나님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 사함을 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 하고자 하는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까 아니면 나의 공로입니까?

★ 결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땅에 속한 장막이 아닌 ‘하늘에 속한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짐승이 아닌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고, 영원한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희생과 수고와 공로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심: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생활에 적용하며 결심할 것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기도: 예수님의 대속의 피보다 제가 수고하고 희생한 것을 더 큰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생색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하신 제 죄를 깨닫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입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4. 사역 나눔(3-4명으로 나뉘서 진행하고 각 팀별로 나누는 내용을 기록하세요)

- 1) **전도 간증과 계획:** 한 주 동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계획도 이야기해 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해 주세요.

* 계획세우기: 전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 2) **세움(양육) 간증과 계획:** 한 주 동안 소그룹원이나 교회의 교인들을 세우기 위한 활동(양육)을 나누어 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계획도 이야기해 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해 주세요.

* 계획세우기: 세움(양육)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 3) **영적 성장을 나눔:**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힘이 되었던 적용 또는 가장 감사한 적용은 무엇입니까?

-
- 4) **중보기도:** 한 주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응답 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문제와 죄를 내놓고 도움과 격려와 기도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약 5:16). 영적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JDTS 제자훈련 간증문

2020년 1월 12일 추운 겨울 날, 삼육중앙교회 지하 유치반에서 DT 제자훈련 1단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같이하자는 초청이 있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루다 새해 결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리더 박지은 집사님과 함께 김정숙 집사님, 오화경 집사님과 저 이렇게 3명이 공부하였습니다. DT를 공부하기 전에는 성경암송하는 것과 성경 지식을 조금은 아는 체를 하였는데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다른 두 분들은 대담도 금방금방 잘 하고 빨리 이해하는데 저만 잘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말씀 목상이 A, B, C, D 단계가 있는데 C, D 단계가 어려워 하루 1-2시간은 기본으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쉽고 알게 성경 공부를 했고,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모태신앙인이며 20년 동안 삼육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었음을 깊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에이스 3인 중에 미운오리새끼 같았던 제가 1단계 시험을 치르고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말에 어쩔 1도 의심없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었더니 “제자를 삼아라”는 응답을 받고 제자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세 분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청했더니 세 분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좋다고 하여 첫 번째 제자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깨어짐은 진짜 이 때부터 더욱 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제자훈련 교재가 있기에 가르침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예수를 하고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팀의 한 분 한 분과 맞추고 조절을 해나가면서 더 많은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힘으로 할 수 없음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제자팀이 1단계가 끝나면서 저도 2단계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단계보다 내용은 더 많아졌는데 시험 보는 게 더 쉬웠습니다. 왜일까요? 코로나가 심해져 만나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줌으로 기도하고나서 각자 시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 저희 중 누군가가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힘입어 이 때 저는 기억절을 오픈북으로 시험봤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양심은 괴로웠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단계에서는 철저하게 암송했고 105점을 받았습니다. 2단계 때 너무 쉽게 시험을 보아서 3단계는 철저하게 공부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2단계 때는 사실 기억절이 외워지질 않았는데 3단계에는 쓱쓱 머리에 들어오고 암송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DT의 꽃은 3단계라고 생각합니다. 3단계의 사명을 이루는 삶과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는 일이 저에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3단계에 들어서면서 제가 정말 변화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억지가 아닌,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뻝했습니다. 매주 만나거나 줌으로 하는 수업이 제 가슴에 감동을 주고 머리로 이해되며, 새벽에 만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 삶에서 하루 종일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사명과 시간관리를 제일 좋아하였는데 제 24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 제 자신의 낭비된 시간들 때문이었음을 발견하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시간을 계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16절 말씀과 같이 제 자신을 파악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명과 재정 관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같이 하나님은 정말 넉넉한 분이시고 저에게 넘치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저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때 안양에 사는 중학교 친구가 안양교회에서 안교장을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나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친구가 다 듣더니 우리도 꼭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가 와서 가르쳐주었으면 좋겠다고 제 손을 꼭 잡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정말 간절하게 제자 훈련을 원하는데 선생님이 없다는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가서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안식일에 예배드리자마자 안양에 가서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바로 출발해서 가르치고 집에 오면 저녁 7시였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지만, 보람 있었던 것은 그 곳에 모인 다섯 분들이 정말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뢰아 사람들처럼 제가 교재를 읽고 답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묻고 또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은퇴하신 집사님 두 분이 계셔서 어떻게 DT를 따라하실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의 기우였습니다. 매일 아침 카톡방에 인사하시고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열정이 뜨거워 제가 그 열정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DT를 하면서 중보기도의 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멤버들이 매주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를 위해 매일 기도하면서 더욱 서로를 챙기게 됩니다. 한 주 동안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대하면서 만나 더욱 친근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안양팀을 위해 열심히 하면서 우리 삼육중앙교회에서도 열정있는 세 번째 제자팀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팀이 있어 기다림 끝에 기쁨으로 '아가페 삼인방' 팀이 담임 목사님의 허락하에 지하 유치반에서 첫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결심을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으나 나 대신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대장 예수님을 붙들도록 기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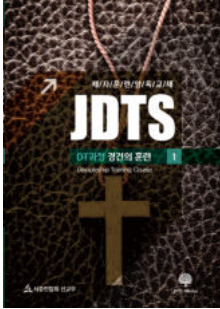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기 위한 일곱가지 실체에서 더욱 변화될 저의 삶에 대해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을 하시며, 둘째, 우리와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으시죠? 셋째,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지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배울 때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단계를 저는 얼마 전 경험했습니다. 2021년 소그룹 부장을 연임해야 한다는 것이 제게는 무척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었지만 성령님께서 성경으로 기도로 교회로 여러 환경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일곱째,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키시고 우리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00교회 성도님들을 이 귀한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초청하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기대가 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눈동자같이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2021년 더욱 그 깊은 예수님의 사랑에 폭 빠지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정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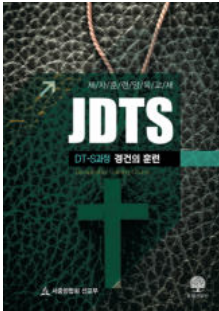
JDTS 제자훈련 교재 소개

(2021년 4월 13개국 342개의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제자훈련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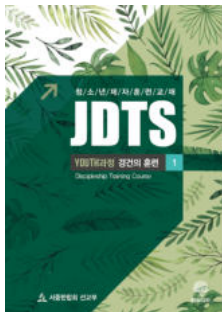
양육교재 DT과정: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 교재(DT과정)는 3단계 27과로 되어 있습니다. 약 7개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앙에 꼭 필요한 묵상과 기도훈련, 복음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구속의 경륜, 사명과 시간관리, 재정관리, 건강관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7가지 원리를 배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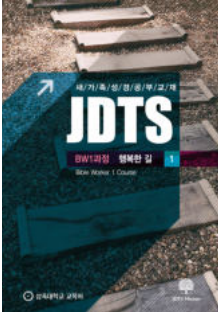
양육교재 DTS과정: 경건의 훈련 심플

이 교재는 위 교재(DT) 27과 과정을 축약하여 꼭 필요한 13과로 구성했습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과 DT 과정을 사정상 하기 어려운 분들(학업에 부담이 많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바빠서 훈련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 강한 신앙 훈련 받기에는 아직 힘드신 분 등)을 위해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양육교재 -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제자훈련 교재입니다.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훈련을 받고 신앙의 정체성을 찾으며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도교재 BW과정 - 행복한 길

행복한 길 교재는 20년이 넘는 전도 실전 경험과 10년 이상 전도단을 운영하면서 가르친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과 성경 교수 과정을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1)시작, 2)교리, 3)예언, 4)표상 총 4권으로 되어 있으며 이 훈련을 받게 되면 구도자를 접촉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그룹교재 SM과정 - 소그룹 사역훈련

예수님께서서는 홀로 일하지 않고 소그룹을 만들어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원리에 따라 생명력 있는 소그룹을 만드는 7가지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는 소그룹의 비전과 사명, 지역사회의 필요를 찾으며 시스템을 통해 생명력 있는 소그룹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방법을 배우며 실천합니다.



은사와 사역 발견 교재

NCD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사역에 관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들의 은사와 맞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에 맞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총 7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시간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교재 LT과정

양육훈련(DT)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교재는 3과에 걸쳐서 묵상하는 법과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돕습니다.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쉬운 방법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JDTS 제자훈련 후기

“저의 삶은 제자훈련을 시작한 2017년 전후로 나뉜다고 해도 될 만큼 JDTS 제자훈련은 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북 봉화 - 김지00)

“신앙의 성숙을 위해 훈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훈련은 꼭 받아야 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 남양주 - 김00)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목마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꿈꾸고 있던 저에게 이번 JDTS 제자훈련 기간은 하늘의 단비에 풍성히 젖어드는 기간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 함00)

“신앙적으로 새로워지고 싶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면 JDTS 제자훈련을 받아보라고 많은 이들에게 자신있게 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 수원 - 최00)

“이전의 제자훈련 시스템과는 정말 다르다고 느껴졌고 매일매일 행복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충남 태안 - 임00)

“제자를 삼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나 스스로 마음이 말랑해지며 하나님 안에 변화되는 것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애틀 - 이00)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체험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을 제자훈련을 통해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 동래 - 엄00)

“JDTS 제자훈련은 쉽게 흔들리고 체계가 없었던 나의 신앙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체계를 잡아주었고 복음을 선명하게 깨달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의 계획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좇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서울 회기 - 안00)

말씀 묵상 월간지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선교단 단장인 김인수 장로(010-5309-1393)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러빙타임 월간지 정기구독신청 안내 ★

1. 가격

1) 정기구독 가격

* 어린이용: 36,000원/년, 청·장년용: 48,000원/년

2) 날권 가격

* 어린이용: 4,000원, 청·장년용: 5,000원

3) 택배비 18,000원/년(6회분)

4) 배송: 본 월간지는 2개월분씩 배송됩니다.

5) 입금 계좌번호

카카오뱅크 3333-14-1812509 박윤경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으로 입금바랍니다.)

2. 문의

* 동중한 - 조혜은(010-3623-7946)

* 서중환/제주 - 박윤경(010-5327-8993)

* 영남/호남/충청 - 우희정(010-2023-1280)

* 그 외 제자훈련 교재 담당자 - 정윤진(010-4006-9501)

JDTS 러빙타임

발행 2021년 2월 5일

편저 김기수 박문규 이범철 이모세 임승우 정영규 현대언 박은미 권현주 이가영

표지/제작 크레이이블

발행처 한국연합회 교회성장연구소, JDTS 선교단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